

고규홍의 나무 생각



모든 것은 이름에서 시작됐다

세상 모든 것의 이름에는 그의 중요한 특징이 담겼다. 일정한 특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름부터 얻는 사람의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나무처럼 사람과 함께 오래 살면서 생긴 이름이라면 그 안에 사람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서 마련이다. 프랑스의 언어생태학자 루이-장 칼베는 "모든 것은 명명(命名)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다. 이름은 대상에 대한 인식 태도의 직접적 반영이라는 이야기다.

우리의 경우, 나무 이름의 유래와 관련한 정확한 기록이 별로 많지 않아 대개의 나무 이름에는 돌 이상의 불명확한 이야기가 전한다. 이 즈음 하얀 꽃을 무더기로 피우는 이팝나무의 이름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다. 우선 이팝나무의 꽃이 입하(立夏) 즈음에 피어나기 때문에 '입하목' '입하나무'라 부르다가 이팝나무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싹밥을 뜻하는 '이팝'이나 '이팝'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이야기도 있다. 나뭇가지 위에 하얀 꽃을 무성하게 피우는 이팝나무의 꽃차례가 마치 하얀 사발 위로 소복이 담은 싹밥, 즉 고봉밥을 연상하게

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이 나무를 '눈꽃나무'라고 부른다. 같은 꽃차례를 보고 우리는 '밥'을, 다른 나라에서는 '눈꽃'을 떠올린 것이다. 이팝나무와 비슷하게 조팝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도 있다. 낮은 키로 자라는 나무의 가지마다 앙증맞은 하얀 꽃을 줄줄이 매단 나무의 모습이 마치 꽃망울이 연상하게 하는 나무다. 영어권에서 이 나무의 이름을 '새 색시의 화환'이라고 부르는 게 금세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생김새를 가진 나무다. 우리가 이 나무를 조팝나무라고 부르는 건, 하얀 꽃송이의 안쪽에 촘촘히 돌아난 노란 꽃술이 마치 싹밥을 섞어 지은 조팝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나무를 바라보면 사람마다 연상하는 게 전혀 다르다. 어떤 환경, 어떤 문화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랄까 할 수 있다. 물론 나무에 따라서는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느낌의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회화 나무가 그렇다. 곧은 줄기가 기개 있게 솟아올라, 자유분방하고 거침없이 뻗어

나는 가지를 보고, 서양 사람들은 '학자 나무'(Scola Tree)라 했고, 우리는 '선비수' 혹은 '학자수'라고 불렀다. 물론 우리의 옛 선비들은 회화나무에서 꽃이 피는 걸 보고 과거 시험 칠이 다가온다는 걸 알아챘다는 남다른 의미까지 덧붙였지만, 서양과 우리의 명명 근거에 큰 차이는 없다. 나무 이름을 보면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팝나무나 조팝나무에서 밥을 연상한 건, 무엇보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던 굶주림의 시절을 오래 견뎌 왔다는 방증이다.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걸 가장 소망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늘의 뜻에만 기대어 살아야 했던 가난한 시절이었다. 그 시절, 사람들은 결에서 피어나는 하얀 꽃을 보면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싹밥을 떠올렸고, 낮은 키로 피어나는 조팝나무 하얀 꽃에서는 꽃송이 가운데에 돌은 노란 꽃술을 보면서 맛난 조팝을 떠올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나무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나무 이름도 있다. 역시 먹고 사는 게 가장 절박했

던 우리 살림살이를 그대로 대변하는 나무 이름인데 진달래와 철쭉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두 꽃은 비슷하게 생겼다. 하지만 둘 중 하나는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는 계절에 산과 들에 지천으로 피어나서, 딱딱하며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다른 하나는 꽃송이에 약간의 독이 들어 있어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났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꽃을 피우는 진달래는 '참꽃'이라 불렀고 먹을 수 없는 철쭉은 '개꽃'이라 했다. 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람들은 진달래에 '참'이라는 최고의 호칭을 붙였고, 진달래보다 화려하게 피어나는 철쭉에는 '가짜'라는 뜻의 '개'를 붙였다. 배고픈 시절에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은 별무소용(別無所用)이었다는 이야기다. 나무 이름에는 이 땅의 삶과 역사가 들어 있다. 나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담은 사람살이의 역사를 짚어 나가는 길이다. 길잡이로 피어난 작은 꽃들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게 되는 까닭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봄철 알레르기 비염



양지애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전문의

이맘때만 되면 콧물, 재채기, 코 막힘 등 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진다. 또한 미세 먼지 농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연일 경보가 울리고 있어 코 건강이 위협을 받는 시기이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과 원인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알레르기 비염은 보통 사람에게는 그다지 해롭지 않은 공기 중의 원인 물질(꽃가루, 집 먼지 등)이 코로 들어가 복잡한 면역 반응을 거친 후 예민하게 반응해 증상을 유발하게 하는 면역 질환이다.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영아 습진, 두드러기도 같은 계통의 질환이다. 이중 열, 몸살 같은 감기 증상 없이 발작적으로 재채기가 나면서 물같이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코가 막히면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증상이 가장 심하다. 눈 주위가 가려운 알레르기 결막염이 동반되기도 한다. 1년 내내 증상이 지속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은 실내의 알레르겐(항원)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집 먼지 진드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집 먼지 진드기는 사람의 비듬을 먹고 살며 이 진드기의 배설물이라든지 찌꺼기 등이 먼지가 되어 코 안으로 들어가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시키게 된다. 특정 계절에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나무나 잡초의 꽃가루 같은 물질이 주요 원인이다. 2월 말부터 5월 경의 봄에는 자작나무, 오리나무 등의 나무 종류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많고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의 가을에는 벼, 돼지풀, 잔디 등의 풀 종류에서 발생하는 꽃가루가 많다. 봄철에 하얗게 날아다니는 솜털 같은 것을 꽃가루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꽃가루가 아니라 꽃씨이며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꽃가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씩 이동하기

때문에 집 주위에 산이나 나무가 없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알레르기 비염에는 특정 유발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코 안으로 들어오면서 알레르기 비염의 증세가 생긴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 자체만으로도 환자의 코 안은 매우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원인 물질이 아닌 미세 먼지, 매연, 담배 연기, 찬 공기 등의 자극에도 쉽게 반응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이 유발된 동물 모델에서 미세 먼지 노출 시 비강 세척액 내 각종 염증 세포들과 알레르기 비염을 매개하는 매개 물질 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미세 먼지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코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을 증가시키고, 각종 알레르기 반응 매개 물질을 증가시킴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 미세 먼지가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코는 공기 속 먼지를 걸러내는 공기 청정기 역할을 한다. 최근 '미세 먼지를 입으로 흡입하는 것보다 코로 흡입하는 게 더 치명적이다'라는 말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코로 숨을 쉴 때는 콧속 점막 등이 미세 먼지를 흡착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실 때는 미세 먼지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꽃가루는 비가 오면 줄었다가 맑고 바람 부는 날이면 많아지므로 이런 날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꼭 나가야 한다면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집 밖에서 옷을 털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세수나 샤워를 한 후 외출할 때 입은 옷을 침실에 두지 말고 따로 두는 것이 좋다. 집 창문은 하루 한두 번만 열고 가끔씩 닫아 둔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집 먼지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은 1년 내내 있지만 가을 환절기엔 증상이 더욱 심해져 다음 해 봄까지 계속된다. 집 먼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한 청소가 필수이다. 물론 원인 물질을 피하는 회피 요법만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심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 같은 알레르기 검사 후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약물 치료로 치료할 수 있으며, 심한 코막힘은 수술적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기고

드넓은 바다에 배만 띄우는가?



김현철 광주전남연구원 농수산해양연구실장

엔지 불안하다. 물속으로 잠기진 않을까? 과연 저게 날아올 순 있을까? 심하게 프로펠러가 요동치며 물살을 헤치기 시작하다니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물을 등지고 하늘로 오른다. 밴쿠버항에선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대략 5분여 간격으로 하루만도 130여 차례 수상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초기에는 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의 주도(州都)가 있는 빅토리아 섬이나 선거구를 오가는 주(州)의원들이 애용했으나, 이제 밴쿠버 및 인근 지역을 둘러보는 항공 관광객이 저를 오가는 지역민의 교통수단으로도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급기야 유명 관광지인 휘슬러의 그린 레이크(Green Lake)라는 호수까지도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시애틀까지 있는 국제선도 운영 중이다. 비행기를 띄우고 내릴 수 있는 물만 있다면 어디든 연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와중에 국내에도 수상 비행기를 띄운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지난 2011년부터 수상 비행장 시범 사업을 추진한 이래, 올해 하반기 충북 제천의 청풍호에서 국내 첫 수상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는 것이다. 제천시는 수상 비행기를 통해 청풍호 주변 항공 관광을 비롯한 산별 감시, 각종 행사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남 관광객 6000만 시대를 목표로 우리 지역에도 굳직한 관광 기반 조성 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서남해안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비롯한 아름다운 해안선과 섬, 갯벌 자원을 연계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하나 된 관광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바다와 어우러진 해안 절경을 비롯한 섬의 비경, 낙조와 함께 하는 선상(船上) 관광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함께 연계되어 그 효과 또한 커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더 이상 새로움이 없고 어느 지

역에서나 체험할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관광 상품으로는 매년 줄어드는 국내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기도 어렵거나, 연휴만 되면 해외로 발걸음하는 여행객들을 되돌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즈음 바다와 간척으로 만들어진 호수가 즐비한 서남권을 수상 비행기로 둘러보는 새로운 관광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다. 다도해의 이름 다음과 새로운 관광수단의 극적인 만남은 국내 여행의 개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새로움을 찾는 여행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성장 동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흑산도 공항 건설 문제에 있어 수상 비행장 조성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대를 넘어서고 건설 비용 등 예산 투입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 50인승 이하의 소형 수상 비행기는 300~500미터의 물길만 있다면, 건설이나 토목 공사 없이 간단한 비행장 계류 시설만으로도 언제든지 띄울 수 있게 된다. 그 효과는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만이 아닐 수 있다. 수상 비행장 시범 사업 유지

경쟁에 뛰어들었던 영암의 연산호 등을 기점으로 조성한다면, 삼포 지구 중심의 모터 산업과도 연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수상 비행기는 제트 엔진의 추력이 아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회전체인 모터와 항공유를 이용한 프로펠러를 활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무안 공항 배후 지역 중심의 항공 MRO사업이 무산된 지금, 지역의 자연 여건을 토대로 수상 항공에 특화된 산업 집적지이자 수상 항공의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최근 전남 서남권은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목포 근대 문화 역사 특구에서부터 지난 4일 개통한 천사대교까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올해 10월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칠산 대교 개통은 명실상부한 '전남 관광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다도해 수상 비행 관광까지 더해진다면 지속적인 관광 수요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연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배만 띄우는 바다에서 비행기까지 띄우는 미래 바다! 가히 전남 관광객 6000만 시대, 아니 1억 명 시대가 먼 훗날의 얘기는 아닐 듯싶다.

社說

‘독일의 나치 청산’ 5·18 해결의 본보기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지금까지도 나치 범죄 부역자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처벌하고 있다. 나치범죄 중앙수사국으로 불리는 '국가의 사회주의 범죄 수사를 위한 법무·행정 중앙사무국'이 그 중심에 있는데, 창설 이후 60년 동안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서 찾아내 매년 평균 30명은 재판정에 세우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94세의 전직 나치 친위대원 오스카 그로닝을 법정에 세웠다. 이처법 청소년기에 경비병을 맡았던 90대 고령자에 대해서까지도 재판은 가차 없다. 2011년 나치 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목격자 증언만으로 홀로코스트 방관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오늘 '나치 청산'을 언급한 것은 연스룸펠 나치범죄 중앙수사국장이 오는 19일 광주에 오기 때문이다. 이날 5·18기념

재단은 '학살과 난민-국가 폭력과 국가의 보호 책임'을 주제로 광주아시아포럼을 개최하는데, 룸펠은 '홀로코스트에서 배우는 교훈'이란 발제를 통해 독일의 과거사 청산 사례를 들려줄 예정이다. 룸펠은 광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은 독일 정부가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했는지 후대에 남기기 위한 기록 작업'이라며 '우리의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독일의 나치 범죄 추적과 처벌 사례는 다양한 메시지와 교훈을 준다. 우리의 경우 아직 발표 명령자 등 핵심 의혹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확실성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과정에서도 독일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미디어아트 도시’로서의 광주가 나아갈 길

최근 광주시가 유네스코의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재선정됐다는 소식이 다. 지난 2014년 지정된 후 처음 실시한 평가 심사에서 '매우 만족'이라는 높은 점수로 다시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광주는 창의 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재선정에는 광주시는 이미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7년빛고을시민문화관과아트스페이스 등에 홀로그램 극장, 미디어 놀이터, 미디어 338 등 6개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문화재단 산하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사업단의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미디어아트 플랫폼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미디어아트 센터의 경우 벌써부터 규모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을 핵심 시설이지만 층고가 낮은 데다 전문성을 갖춘 운영 주체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개최해 온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역시 홍보와 콘텐츠 미흡으로 존재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는 광주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브랜드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시는 이번 재선정을 계기로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플랫폼에 대한 정교한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또한 시민의 문화적 향유와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 기관이나 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수많은 공연의 히트곡을 남긴 국민 가수 이미지 씨가 올해 가수 데뷔 60년을 끝으로 은퇴한다는 소식이 다. '동백아가씨'를 비롯해 '섬마을 선생님' 등 그녀의 노래들은 사랑·이별·그리움 등을 담아내 많은 이의 심금을 울렸다. 특히 애절한 가사와 곡조를 타고 전해지는 명징한 목소리는 단연 압권이었다. 이미지의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로 '엘레지의 여왕'이 있다. 1967년 같은 제목의 노래를 부른 뒤 얻은 별칭이다. 엘레지(elegy)는 그리스어 엘레게이아(elegeia)에서 유래된 말로 비가·애가·만가라고도 한다. 이미지의 엘레지에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슬픔이 담겨 있다. 그녀의 노래 중 흑산도 아가씨는 동백아가씨와 함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아닌가 싶다. '물결은 천 번 만 번 밀려오는데 못 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겹겹 타버린' - 이 노랫말은 섬의 95%가 삼목수로 우거져 겹겹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흑산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흑산도 어린이들의 서울 구경'이라는

신문 기사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노래가 히트하면서 흑산도는 일약 유명 관광지 됐다. 지금도 흑산도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이 '흑산도 아가씨' 노래배다. 사실 흑산도는 남방식 지석묘 및 패총, 진리당, 배낭기미습지, 구절양장(九折羊腸)의 상나리고개, 하늘도로, 면암 최약현 선생 유해비 등 다양한 자원을 지닌 곳이다. 흥도·장도·만제도·가거도 등 11개의 유인도가 90여 개의 무인도와 함께 군도를 이루며, 파시(波市)가 열렸던 장소로도 유명했다. 흑산도에서 '그리운' 육지 가는 길만큼이나 육지에서 '보고 싶은' 흑산도 가는 길 역시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한 것이 흑산공항이다. 2020년 개항 예정이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친척이 없다. 울릉공항은 2025년 개항한다는데 흑산공항은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흑산도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접근성·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흑산공항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흑산도 엘레지'는 이미지의 노래 하나라도 충분하니깐.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독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경 영 지 원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채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64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